



코리아를 위해 일평생 기도하신 할머니

<하용조 목사님 간증>

제가 영국에서 3년간 유학할 동안, 마이클 그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, 차를 몇 시간이나 타고 찾아갔다. 거기서 어떤 귀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...

제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, 마이클 그린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'잠깐만 기다리라, 코리아를 위해서 60세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 분을 만나보고 가라'고 해서,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.

그 할머니는 한국전쟁(625)이 일어났고,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 보았다. 한국에는 기본 적도 아직 없으셨다. 그렇지만 그 신문을 오려 놓고,

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한국의 절망적인 고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셨다.

1950 년도에 시작된 기도가, 이후로 자기 일평생의 기도로 이어졌다.

그 소문이 그 교회에 다 알려졌다.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보니(당시 60대), 한국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다. 그 때 제가 깨달았다.

'지금 우리 한국이 예수 잘 믿게 된 것은, 그 할머니 중보기도 때문이라고...'

그 분은,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하셨다. 일평생 기도하셨다.

그 분께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, 그가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'코리아'였다.